



이진중 한국환경교육협회 부회장

자원 재활용의 모범 답안 스티로폴 재활용

우리는 97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항상 경제는 발전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제는 돌아보지도 오늘은 바로 보지도 않고 미래만 보고 질주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과 사회 분위기였다.

9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3kg으로 독일 0.9kg, 일본 1k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청난 쓰레기를 발생시켜왔다. 서울 시민들이 쓰레기만으로 '산(난지도)' 하나를 만들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는 김포에까지 또 하나의 쓰레기 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여러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책이 결정되어 2개소는 현재 가동 중이고 1개소는 건설 중이며 3개소는 기본 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다. 우리들이 생활에서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하고 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쓰레기 종량제이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98년 말을 기준으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1kg으로 줄이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발휘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 배출에 있다.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판유리, 옷가지, 가전제품, 목조 가구, 플라스틱 및 비닐, 음식물, 페스티로폴 등 내용별로 철저히 분류하여 모으면 자원이고 섞어서 버리면 쓰레기이다.

우리는 종량제 성공의 조건인 분리 배출과 함께 시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하나바다 운동'의 생활 회화를 통해 30%대의 자원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4대 쓰레기라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의 재활용율 1%를 향상시킬 때 우리 경제에는 639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독일과 일본의 재활용율이 60%선이라니 우리도 재활용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진하여야 하겠다.

쓰레기 중에서도 악성 폐기물로 재활용이 안된다는 스티로폴의 고정관념을 해소시킨 곳이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다. 96년 3월부터 스티로폴을 재활용 분리 수거 품목으로 지정시키면서 전국 시군구에 감용기를 지원, 설치하여 부피를 줄이고 재생업체를 활성화하였다. 이로써 재생 원료 생산과 질 좋은 환경 상품을 만들어 국내 판매와 수출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사랑받는 재생용품으로 정착되고 있어 좀 노력하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재생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라면 용기 등 스티로폼 식품 포장 용기가 양천구에서 재활용 분리 수거 대상 품목으로 선정, 시범 실시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